

#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야 총출동 예고

## 통합시장 후보 선출 민형배, 의원직 사퇴시 6·3 동시 실시 민주당, 전략공천 '무계'... 기본소득당 등 도전 의지 밝혀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민형배 후보가 최종 선출되면서 그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전 지역 공천' 방침을 세운 데다 기본소득당도 참전을 예고하면서 여야 전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회의원 신분인 민 후보가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있다. 민주당은 정경래 당 대표가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해 '전 지역 공천' 방침을 공식화하며 전략공천 방침을 분명히 한 만큼, 광주 광산을 지역도 전략공천으로 후보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후보군을 둘러싼 하마평도 이어지고 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인천을 기반으로 정치를 이어왔지만 광주·전남이 고향이라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광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이력도 있어 명분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인천지역에서의 민주당 공천이 어려울 경우 광주 출마가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송 전 대표가 전남광주통합시장 경선에서 김영록 후보를 지지한 것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민 후보 캠프 대변인인 윤남실 전 더불어민주당 제2차장 겸 부대변인도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민 의원의 추천과 중앙당의 전략적 결정까지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 '호남 메신저'로 통하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도 이름이 오르고 있지만 전략공천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 등도 불명에 오르내리고 있다. 아래에서도 후보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당은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중앙선대위에서 확정해 이달 30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발굴하고, 5월 초 당내 선출을 완료할 계획이다. 윤례민 당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 3곳의 재보궐선거 가운데 광주 광산에 국회의원 후보를 내고 선거 승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등이 후보를 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출마했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새미래민주당의 출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전략공천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다른 지역 상황과 맞물려 광산을 또한 공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 개인 경쟁력뿐 아니라 중앙당과의 관계, 정치적 상징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원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한병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한 원내대표, 우 의장,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 구례 '수숲기간', 청년마을 공모 선정

### 전남 6년 연속 성과... 산림 기반 일자리·정착 모델 구축

전남 구례의 '수숲기간'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모에 선정되며 지역 기반 청년 정착 모델 구축에 나선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구례 '수숲기간'이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전남은 6년 연속 청년마을 공모 선정 성과를 이어갔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청년 유출을 막고 외지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해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전국 141개 단체가 신청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10개 마을이 선정됐다. 선정된 마을에는 연간 2억원씩 3년간 총

6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공모 선정된 '수숲기간'은 구례의 임업·산림 자원을 기반으로 청년 유입부터 체류, 일자리 창출, 정착까지 이어지는 산형형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산림 분야 인적 자원과 산림조합 등 지역 기관을 연계해 창의 활동을 확대하고, 나물사관학교와 숲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청년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 기반 마련을 동시에 추진해 청년 정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신수정 시의회 의장 사퇴 북구청장 선거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후보로 선출된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사진)이 의장직을 사퇴했다. 광주시의회는 이에 따라 부의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 의회를 운영한다. 1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의장은 이날 의장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신수정 의장은 "계속해서 사퇴에 대해 고민해 왔다"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만큼 지역 현안을 챙기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직을 내려 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추경, 강진서 먼저 체감돼야" 차영수, 집행 속도 등 강조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전경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차영수 강진군수 후보(사진)가 추경의 성패는 '속도와 체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지역 현안 중심의 집행을 주문했다. 차영수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 후보는 15일 "추경은 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닿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농어민과 서민, 소상공인이 많은 강진에서부터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과 촘촘한 현장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정부의 추경 편성을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했다. 특히 농어민 유가연동 보조금, 비료·사료 구매비 지원 확대, 서민 대상 고유가 폐해지원금과 지역화폐 지급 등 주요 항목을 거론하며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라고 진단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정준호 "광주-인천 국내선 '필수'... 신속도입을"

### 국내선 유치 위한 항공업계·정부와 간담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국토교통위원회·사진)은 15일 한국항공공사 광주지사에서 '광주공항-인천국제공항 국내선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항공교통 공백 해소와 광주·전남 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이후 공항 폐쇄로 인해 발생한 광주·전남 시도민의 항공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로, 국토교통부, 한국항공공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티웨이항공·제주항공 등 항공업계와 광주관광협회, 광주시, 광주관광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준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공

항 이전은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중장기 과제인 만큼, 그 과정에서 지역민의 이동권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며 "광주공항은 위기 상황에서 지역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현실적인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인천 국내선의 도입과 안정적 유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관공 활성화, 지역 접근성 개선, 국제선 연계 강화, 지역경제 회복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지방공항으로 직접 이동이 어려운 구조는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제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했고, 제주-인천 노선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광주-인천 노선 역시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

이라며 "출입국 시설 설치가 필요 없는 국내선이라는 점에서 신속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항공사들의 운항 부담을 줄이고 노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관광업계 지원, 재정 지원,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제시됐으며, 안정적 운영 구조 마련의 필요성에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정 의원은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지속가능성"이라며 "전남광주에서 유일한 국토위원으로서 국회 차원의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이종욱, 민형배 후보에 정책 토론 제안

### "전남광주서 사라진 단체장 본선 찾는데 협력"

진보당 이종욱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사진)는 15일 더불어민주당 특별시장 후보로 확정된 민형배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호남의 미래를 위한 당당한 정책 대결과 토론회를 공식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긴 경선 과정에서 끝까지 박빙의 승부를 펼친 김영록 후보를 비롯해 신정훈, 강기정, 주철현 후보 등 모든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0년간 사라진 단체장 본선을 되찾는 데 협력해 주길 요청한다"며 "본선이 있는 선거, 유권자가 선택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선 최소한 후보 간 정책, 공약 경쟁과 검증은 위한 토론회가 필수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후보는 "진보당을 비롯한 다른 소수 정당을 상대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는 오만 따위는 없을 거라고 믿는다"며 "다만 계급 정당, 내란 정당, 위헌 정당인 국민의힘 후보는 빼고 민주당의를 실현할 후보들끼리 활발한 토론을 열자"고 강조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광주·전남 산업 정체, 입지 아닌 정치 문제"

### 이정현, 에너지·SI·미래차 등 10대 전략산업 제시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사진)는 15일 "광주·전남은 입지나 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행정의 구조적 한계로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며 "결정이 늦고 책임과 도전이 부족한 구조가 기업 유입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안착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 역할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펼치며,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자립 지원 사업과 보조기기 지원체제도 세심히 살피고 있다. 장애인 연금과 각종 수당, 의료비 지원은 물론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편성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 돌봄 부담이 큰 발달장애인 가정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기업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머물지 못하는 구조"라며 "속도와 실행력이 부족한 행정,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정치 환경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치 경쟁 회복'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치와 행정이 긴장감을 갖고 움직일 때 투자와 일자리가 따라온다"며 "공천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쟁을 복원해야 행정 속도와 기업 대응력이 동시에 개선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이 집중해야 할 10대 전략 산업도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해상풍력과 태양광, LNG, 원전을 연계한 전력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RE 100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광주, 체감형 복지로 '장애인 친화도시' 속도

### 돌봄·자립·일자리·건강 등 장애인 삶 아우르는 안전망 구축

광주시가 돌봄·자립·일자리·건강 등 장애인 삶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지역 내 장애인 단체와 법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다져 민관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12개 사회복지법인과 73개 비영리법인, 56개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 중 16개 주요 단체에 총 12억8400만원을 지원해 운영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제적 자립의 핵심인 일자리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5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1425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지원'과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기반 시설(인프라)도 견고히 구축하고 있다. 장애인화 건강검진기관 운영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호남권재활병원)를 통한 전문 재활서비스 제공, 지역장애인지원센터(전남대학교병원)를 통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치과주치의 사업 안내 등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157곳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후시설 가능

보강 사업을 지속 추진해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지역사회 안착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 역할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펼치며,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자립 지원 사업과 보조기기 지원체제도 세심히 살피고 있다. 장애인 연금과 각종 수당, 의료비 지원은 물론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편성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 돌봄 부담이 큰 발달장애인 가정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